

문산수해피해에관한청원서

의안 번호	205
----------	-----

발의년월일 : '96년 10월 18일

발 의 자 : 송규범의원

1. 청원개요

- 가. 청 원 인 :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김영래, 윤우인의 600명
- 나. 소개의원 : 송규범의원
- 다. 접수일자 : '96. 10. 18
- 라. 청원서사본 : 별첨

2. 청원 주요골자

- 파주시 수재민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현실에 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판단되는 바,
- 수재민 일동은 (주)현대와 정부에게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줄 것을 청원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 건명	문산 수해피해건에 대한 청원		
청원인	주소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성명	김영래, 윤우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송규범 (인)		
소개년월일	'96년 10월 18일		

소개 의견

- 파주시 수재민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현실에 맞지않게 턱없이 부족하여 수재민들의 재해로 인한 아픔위에 실망과 좌절을 다시 느끼며 분노하고 있으며,
- 또한 이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연천댐의 부실함과 관리소홀에 있음에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바,
- 시의회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당 시·군과 연대하여 총력 대응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며 청원을 소개함.

청원서

- 귀 기관의 무궁환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파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파주시 수재민 김 영래, 윤 우인 외 600명은 정부와 파주시의 수해복구 정책에 감사를 느낍니다.
- 그러나 파주시 수재민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수재민 일동은 (주)현대와 정부에게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줄 것을 양망하며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김 영 래, 윤 우 인 외 600명



청 원 서 요 지

평소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오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7월말경 우리 고장에 내린 청천벽력 같은 폭우는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문산시가지를 비롯한 임진강 수계마을과 농경지를 참혹할 만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동안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성원과 온정에 힘입어 우리 수재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재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던 의원님들께 마음 가득히 감사드리고 또, 앞장서서 수재민들의 아픔을 몸으로 대변해 주시던 의연한 모습을 생각하며 거듭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당국에서 최종 발표한 수해지역 복구계획과 보상기준 등을 전해들은 저희들은 재해로 인한 아픔위에 실망과 좌절을 다시 느끼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끝까지 재해의 근본원인과 귀책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인지?
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수재현장에서 약속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인지?

시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합시다만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대책과 보상기준이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책과 의지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이 시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뭐라하든 연천댐의 부실함과 관리소홀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천댐의 소수력발전소는 현대건설에서 축조하여 관리 운영하던 곳으로서 여러해 전부터 이미 붕괴가 예견되어 수차 건의를 할 정도였으나 주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매년 장마때마다 응급복구로 일관해 온 현대건설의 안이함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현대건설은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1만여 수재민에게 사죄함은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최선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시·군이 연대한 총력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1만여 수재민들은 머지않아 추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지하여 기댈 곳은 시의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저린 가슴을 녹여줄 반가운 결과 있게 되기를 마음조려 기대하면서,

끝으로 오기덕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하심과 파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6년 19월 일

파주시 수재민 일동